



5면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준비 본격화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음 11월 27일) 제3897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도, 특례 333개 중 75개 사업화

지구·단지·특구 지정
시·군별 대표 특례 등
61개 과제는 시행 단계
민생 전반에 긍정적 변화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4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기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아 도민 체감형 변화를 중심으로 민생·산업·기반 전반에서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14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특례 실행이 지역 산업과 민생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년간 전북 특별법에 따른 333개 특례 가운데 75개 과제를 사업화했으며, 지구·단지·특구 지정과 시군별 대표 특례 등 61개 과제는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규제 완화와 행정 속도 개선,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 등 6개 지역이 농생명 산업지구로 지정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권안양을 통해 농업진흥 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행정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됐고, 생산 중심이던 농업 구조가 가공·유통·연구개발·기업 입주까지 아우르는 산업형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전북형 공수의 제도'를 도입해 민간 수의사 7명을 5개 거점 지역에 배치 가족 병역 공백을 해소하고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무주와 부안이 야간 관광진흥 도시로 선정돼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부안 변산반도 사립 사업 이후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은 전년 대비 213% 증가했으며, 무주는 세계관광광청(UN Tourism) 주관 '2025년 최우수 관광비료'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주 혁신·민생지구가 전국 최초 핀테크 육성 지구로 지정돼 25개 금융 관련 기업이 입주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 개소를 통해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전주 한스타일 영상지구, 익산 동물용 의약품 남원 스마트팜, 무주 산악관광, 완주 수소경제 등 14개 시군별 특과 특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체계의 전환을 넘어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가치모델의 실현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그간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과가 도민의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특별법 후속 개정과 함께 시군 연계 특례와 미래 핵심 산업 분야 특례를 지속 발굴해 도민 체감형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단 운영을 통해 609명의 구직자를 발굴하고, 이차전지·자동차 분야 등 18개 기업에 202명을 취업 연계하는 성과를 냈다. 글로벌 창업 이민센터 개소로 해외 창업 인재 유치 기반도 마련했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체계의 전환을 넘어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가치모델의 실현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그간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과가 도민의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특별법 후속 개정과 함께 시군 연계 특례와 미래 핵심 산업 분야 특례를 지속 발굴해 도민 체감형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도내 정치권,尹 사형 구형에 "사필귀정, 국민의 준엄한 명령"

도내 정치권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최종 선고로 한정 파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사필귀정이라 국민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선 수석대변인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런 사형 구형은 특정 개인에 대한 판단을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국민적 요구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이 다시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오현숙)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구형은 정의의 완성이 아니며, 최종 선고를 통해 헌정 파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 발전 정책·현안 공론장서 공개토론하자”

민주 이원택 의원, 전북도지사 후보군 상대로
지역발전 핵심 전략·행정 통합 등에 입장 요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14일 대한민국의 5

급 3복 기초 속 전북 발전 전략이라는 중대한 의제에 대해 모든 전북도지사 후보들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도민 앞에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도지사 후보군들을 상대로 우선 △전북 발전 핵심 전략 △완주·전주 통합 △새만금특별자치제 구성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 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과 현안에 대해 도지사 후보자 모두가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우선 각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라"며 "그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조율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 토론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의 산업·인구·재정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지역간 통합·상생은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더 이상 추상적 언어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단편적 프레임과 자극적 인사로 상대를 흠집 내는 방식은 전북의 미래를 밝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며 "네거티브 경쟁이 아니라 전북의 10년, 20년을 책임질 전략과 실행력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5급 3복 국가 발전 기초 속에서 광역

단체들이 통합을 통해 메가시티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독자적인 특별자치 노선을 걷고 있는 전북 역사가 흐름에 대응해 자신만의 특화 전략을 더욱 고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북 정치권이 분열이 아닌 연대로 힘을 모으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전략이라는 역사적 기회 속에서 전북이 방향을 놓치지 않고 책임은 고스란히 정치권에 돌아가고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전북 도내 언론사가 제의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토론회가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저는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타 후보의 반대 또는 미온적 태도로 토론회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어떤 주제가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공론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여론만 흘리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전북의 미래는 바나나 화피가 아니라 준비된 비전과 책임 있는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숨지 말고 정적으로 경쟁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향후 도정 4년은 전북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와 강력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캠페인